

도시재생 관련 신문기사에 나타난 관광에 대한 관심도 분석

박희정
신라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부

An Analysis of Interest in Tourism in Newspaper on Urban Regeneration

Hee-Jung Park
Division of International Tourism Management, Silla University

요약 최근 물리적 재생보다 사회문화적 재생이 더 중요해지면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활용한 지역자원이 도시재생에 서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는 관광의 기능과 부합되면서 도시재생에서 관광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도시재생에서 관광은 중요한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규정 및 정책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도시재생에 있어 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고 실증적으로 그 흐름을 파악해보기 위해 우리사회의 관심정도와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신문기사 게재건수 및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언론 보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를 이용하여 도시재생과 관광에 관련한 기사를 수집 하였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분석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게재건수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정도와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수록 관광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도시재생과 관광에 관련한 기사내용으로는 지역적 속성, 사회문화적 속성, 경제적 속성, 정치 제도적 속성, 물리환경적 속성 순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관광 콘텐츠 자체에 대한 질적 제고 및 보다 적극적인 제도마련과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used a contents analysis method of newspapers to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and tourism. The role of tourism in urban regeneration has become very important recently as social and cultural regeneration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physical regeneration. Despite this importance, relevant policies or regulations are very insufficient in our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terest in urban regeneration and tourism in our society through the contents analysis of the number and content of newspaper articles and analyze the trend empirically. As a result, the degree of interest in urban regeneration and tourism was able to confirm that the level of interest in tourism was increasing year by year. It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enhance the quality of tourism contents and actively implement the system in order to promot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the future.

Keywords : Urban Regeneration, Tourism, Contents Analysis, Newspaper, Locality

1. 서론

지역의 고유성(Authenticity)과 지역성(Locality)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도시재생은 2014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전 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1].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쇠퇴

*Corresponding Author : Hee-Jung Park(Silla Univ.)

Tel: +82-51-999-5911 email: hjp@silla.ac.kr

Received February 27, 2019

Accepted May 3, 2019

Revised March 27, 2019

Published May 31, 2019

한 지역의 물리적 재생, 문화적 재생, 사회경제적 재생을 통하여 지역만이 가지는 콘텐츠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차별화된 콘텐츠로서 관광은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관광은 도시재생에서 사람을 끌어들이고 지역에 대한 방문객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지역성을 보존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것이다[2]. 도시재생을 통하여 지역주민 그들만의 삶과 문화를 지역의 콘텐츠로 유지할 수도 있으며, 이들의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방문객을 유치하고 지속적인 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삶과 일상, 그들의 문화가 담긴 관광프로그램들이 필요시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관광객 증가를 목표로 도시브랜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3].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은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관광객수가 증가해왔다. 2019년 1월 기준 방문객수가 257만명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25%이상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관광은 다른 지역의 문화를 관찰하는 활동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관찰하는 활동을 의미한다[1]. 즉 지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의 고유성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하는 오늘날의 관광객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는 도시재생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생활동들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재생과 관광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물리적 재생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독특한 공동체 회복활동과 문화는 중요한 관광콘텐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장소의 재창조를 추구하는 도시재생에 있어 사람, 생활, 문화, 경험은 필수적이다[5].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도시재생과 관광은 공통적인 요소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물리적 재생보다 사회문화적 재생이 더 중요해지면서 도시재생과 관광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당해 사업들의 실질적인 구성에 있어 문화·관광분야에서의 정책과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도시재생사업과정에서도 '관광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사업이나 정책, 관련법에서는 관광에 대한 내용과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며[2] 관련 연구들도 미흡한 실정이다. 도시재생에서의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의미와 기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도시재생에서 관광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른 이

러한 관심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신문기사를 포함한 언론미디어는 사회를 비추는 창이라고 한다. 신문기사의 관심은 시장 수요를 반영할 뿐 아니라 시장 공급을 촉진하는 역할 및 우리 사회의 관심 변화 및 트렌드를 반영해준다고 할 수 있다[6].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도시재생에 나타난 관광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해보기 위해 주요 신문기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접근하였다. 도시재생에서 관광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필요한 시사점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도시재생과 관광

도시재생은 기존의 물리적 정비 위주로 진행되던 것에서 벗어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 즉 소프트웨어적 콘텐츠가 강조되고 있다[7].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8].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종합 정보 체계(Urban Regeneration Information System)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다음과 같은 변화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4년간은 기법과 제도기반을 구축하는 단계(R&D)로 정책발굴과 기법을 개발하고 테스트베드 실행 및 실용화방안을 마련하고 GIS기반 도시쇠퇴진단시스템 구축 및 후속 실증연구를 추진하였다. 2013년에서 2015년간은 국가지원이 본격화 되는 단계로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2014년)되었으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 및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되었다. 이때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13곳이 지정되기도 하였다. 2016년은 사업지원체계 강화 단계로 사업유형별 특성을 강화하고 다변화를 꾀하며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 보완 및 사업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도시재생 일반지역으로 33곳을 선정하였다. 2017년 이후부터는 도시재생뉴딜 추진단계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구도심에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데 힘쓰고 있다[9].

도시재생지역에서의 관광은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도시재생에서의 관광적 요소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자원들을 활용한 재생자원들은 그 지역만의 관광콘텐츠가 된다. 새로운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어하는 관광객들로 모여들게 되면 이는 관광을 통한 지역의 골목상권이 활성화하고 지

역민의 일자리창출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지역의 기능 회복은 결국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꼭 정주인구의 증가가 아닌 일시적 교류인구 즉 방문자 경제의 효과를 관광을 통해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전체 차원에서 관광객의 동선확대를 통하여 체재 일수와 소비촉진,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도시 재생을 통해 강화할 수 있다[5]. 지역마다 재해석, 재활용 해야 하는 자원들은 많다.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가지도록 하는 과정이 도시재생이며 이는 오늘날 새로움을 추구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관광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에서 관광에 대한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10]. 도시재생의 선도국가들(일본, 영국 등)에서는 문화와 관광은 도시재생에 있어 중요한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법에는 관광에 대한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며, 관광관련 정책부재 등의 상황이다[2].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재생에 있어 관광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기사와 그 기사들 중 관광 관련 기사 분석을 통하여 관심정도와 그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신문기사 내용분석을 통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2.2 선행연구 고찰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나타난 지역의 문제를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11]. 최근에는 물리적 개발의 한계에 따른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8,11-15]. 도시재생에 관련된 연구들은 그동안 꾸준히 이루어져왔지만 2014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더 많이 진행되어왔다. 도시재생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3, 16], 평가지표 개발[18, 19], 해외사례연구[15, 16, 18]나 지역주민의 인식 및 참여[20, 21] 등의 지역주민 대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지역문화 및 콘텐츠 중심의 도시재생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관광의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도시재생과 관광에 대한 연구들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1, 2, 3, 10, 12, 24]. 도시재생과 관광에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도시관광과 연결되어 도시관광 활성화의 초점에 맞추고 있다. 도시재생과 관광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결방향이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관련한 연구들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도시재생에 있어 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신문기사 게재 건수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에 나타난 관광에 대한 관심정도와 그 의미를 실질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3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신문기사에 게재된 도시재생 관련 기사에 나타난 관광에 대한 관심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도시재생 관련 신문기사에 나타난 관광 관련 기사는 연도별로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도시재생 관련 신문기사에 나타난 관광 관련 기사는 신문사별로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도시재생 관련 신문기사에 나타난 관광 관련 기사는 지역별로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도시재생 관련 신문기사에 나타난 관광 관련 기사는 내용별로 어떠한가?

3. 연구방법

3.1 분석기간

본 연구목적에 위해 선정된 신문기사의 분석범위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내용으로 한정한다. 2000년부터 선택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의 도시재생은 2000년대를 전후해서 비로소 본격적인 재생의 개념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5].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정된 것은 주요 신문기사를 검색한 연구시점(2019년 1월)은 해당년도 초기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신문 게재 건수를 분석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위와 같이 한정하였다.

3.2 분석대상 및 분석단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도시재생과 관광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기사들이다. 관련 기사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도시재생 관련 기사와 그 중 관광과 관련한 기사들에 대한 기사들을 분석하여 관심도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타당성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수집된 표본들을 일정한 범주로 분류하여 그 분류된 범주들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추출해 내는 사회조사방법의 한가지이다[22].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언론보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 KINDS(<http://www.kinds.or.kr>) 이용하였으며, 언론보도 빅데이터 분석범주에 속하는 중앙지 11개, 경제지 8개, 지역종합지 28개 모두를 포함한 총 47종을 대상으로 선택하였다[23]. 검색어 '도시재생'을 키워드로 하고, 상세검색으로 포함할 단어를 '관광'으로 지정하여 본문과 제목 전체를 설정한 후 검색기간 2000년 1월 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였다. 분석단위로 총 게재건수, 신문사별 게재건수, 지역별 게재건수 및 기사내용 분석을 위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물리환경적 속성', '사회문화적 속성', '경제적 속성', '정치제도적 속성'을 분석단위로 설정하여[24] 분석하였다. 수집된 기사들은 빅카인즈 1차 분류 이후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4가지 분석단위 이외 지역별 도시재생 관광프로그램 홍보 중심의 내용의 기사들이 검색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들은 따로 '지역적 속성'으로 명명하고 분석단위에 추가하여 총 5개의 분석단위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분류된 기사들은 미리 구성한 분석단위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연구자 이외 대학원생 3명이 함께 조사원으로 참여하였다. 조사원의 기본적 지식에 따라 기준과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분석전 본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 사전교육을 통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빅데이터시스템을 통해 1차 분류된 관련 기사들을 조사원들이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결과 및 해석

4.1 연도별 기사 게재 건수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신문기사에 게재된 연도별 도시재생 관련 기사와 도시재생 관광 관련 기사 게재 건수를 분석하였다. 기사 게재 건수가 많고 증가하였다는 것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므로[6] 게재된 기사 건수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게재된 도시재생 관련 게재 기사는 총 40,396건이었으며 이 중 관광 관련된 기사는 총 5,980건이었다(14.8%).

Table 1. Number of articles posted per year

Year	Urban regeneration articles	Related tourism articles	Percentage (%)
2000	-	-	-
2001	2	-	0.0
2002	3	-	0.0
2003	7	1	14.3
2004	13	3	23.1
2005	31	6	19.4
2006	67	4	6.0
2007	144	19	13.2
2008	455	62	13.6
2009	770	103	13.4
2010	839	85	10.1
2011	920	124	13.5
2012	1,124	165	14.7
2013	2,173	269	12.4
2014	3,747	634	16.9
2015	4,688	838	17.9
2016	4,747	742	15.6
2017	8,725	1,080	12.4
2018	11,941	1,845	15.5
Total	40,396	5,980	14.8

4.2 신문사별 기사 게재 건수

신문사별 기사 게재 건수를 분석하기 위해 빅카인즈에 분류되어 있는 중앙지 11개, 경제지 8개, 지역종합지 27개를 기준으로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총 게재 건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도시재생 관련 기사는 총 4,845건, 경제지 11,741건, 지역종합지 22,86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관광 관련 기사로는 중앙지 682건, 경제지 1,215건, 지역종합지 3,994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신문사별로는 지역종합지, 경제지, 중앙지 순으로 도시재생 관련 기사 건수가 많이 게재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신문사마다 관심사항과 기사를 다루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지역종합지에서 다루는 기사 건수가 가장 높은 것은 그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의 정책과 특성상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경제지에서 더 많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 것 또한 도시재생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과 경제적 관점에서의 관심정도가 높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중앙지 중 도시재생 관련 기사수가 가장 많은 신문은 서울신문(819건)이며, 관광 관련 기사수가 가장 많은 신문은 한국일보(119건)였다. 도시재생 관련 기사 대비 관광 관련 기사수가 가장 많은 비율로 게재된 신문은 한국일보(19.8%)로 나타났다.

Table 2. Number of articles published metropolitan newspapers

Year	Urban regeneration articles	Related tourism articles	Percentage (%)
Kyunghyang Daily News	536	83	15.5
Kukmin Daily	577	91	15.8
Naeil Shinmoon	412	46	11.2
Dong-A Daily News	151	21	13.9
Munhwa Ilbo	405	61	15.1
Seoul Shinmun	819	105	12.8
Segye Times	524	73	13.9
Chosun Ilbo	155	7	4.5
JoongAng Ilbo	127	15	11.8
Hankyoreh	539	61	11.3
Hankook Ilbo	600	119	19.8
Total	4,845	682	14.1

경제지 중 도시재생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이 게재된 신문은 아시아경제(2,511건)이었으며 관광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이 게재된 신문 또한 아시아경제(252건)이었다. 도시재생 관련 기사 대비 관광 관련 기사 게재 비율이 가장 높은 신문은 파이낸셜뉴스(14.0%)였다.

Table 3. Number of articles published in an economic newspapers

Year	Urban regeneration articles	Related tourism articles	Percentage (%)
Maeil Business Newspaper	1,276	113	8.9
Money Today	1,601	149	9.3
Seoul Economic Daily	1,488	146	9.8
Asian Economies	2,511	252	1.0
Aju Business Daily	960	86	9.0
Financial News	1,402	196	14.0
Korea Economic Daily	907	106	11.7
Herald Business	1,596	167	10.5
Total	11,741	1,215	10.3

지역종합지 중 도시재생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이 게재된 신문은 대전·충청권의 지역종합지인 중도일보(2,355건)였고 관광 관련 기사 게재 건수가 가장 많은 신문도 중도일보(315건)이었다. 도시재생 관련 기사 게재 건수 대비

Table 4. Number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local general newspapers

Newspaper company	Urban regeneration articles	Related tourism articles	Percentage (%)
Kang Won Domin Ilbo	819	206	25.2
Kang Won Ilbo	547	106	19.4
Kyeong Gi Ilbo	998	132	13.2
Kyongnamdomin Ilbo	990	171	17.3
Kyungnam Shimun	495	115	23.2
Kyungsang Ilbo	505	131	25.9
Kyeongin Ilbo	1,186	131	11.0
Kwangju Maeil Shinmun	679	174	25.6
Kwangju Ilbo	636	147	23.1
Kookje Daily News	1,233	234	19.0
Daegu Daily News	368	71	19.3
Daejeon Ilbo	907	108	11.9
Maeil Shinmun	416	96	23.1
Mudeung Ilbo	493	142	28.8
Busan Ilbo	1,125	232	20.6
Yeongnam Ilbo	471	83	17.6
Ulsan Maeil	553	121	21.9
Jeonnam Ilbo	516	120	23.3
Chonbuk Domin Ilbo	1,013	221	21.8
Jeonbuk Ilbo	870	199	22.9
JEMIN ILBO	200	45	22.5
JOONGDO ILBO	2,355	315	13.4
Joong-Bu Maeil	1,143	132	11.5
Joong Bu ILBO	1,169	152	13.0
Chungbuk Daily News	746	79	10.6
Chungchong Ilbo	735	66	9.0
Chungcheong Today	1,387	180	13.0
Halla Ilbo	308	85	27.6
Total	22,863	3,994	17.5

관광 관련 기사 건수 비율이 가장 높은 신문은 광주시의 무등일보(28.8%)였다. 도시재생이 지역회생 및 지역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추진사업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특히 다루는 건수가 많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해당지역에서의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전충청권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지역종합지는 발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 게재 건수는 해당 지역 및 지자체에서의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볼 수 있겠다.

4.3 지역별 기사 게재 건수

위에 나타난 분석결과를 보면 중앙지나 경제지에 비해 지역종합지의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은 기사 게재 건수의 합계 자체부터가 47.2%나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 <Table 5>는 <Table 4>의 각 지역종합지의 발행지역을 중심으로 6개 권역으로 다시 재구분하여 기사 게재 건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재생 관련 기사 게재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충청권(7,273건)이며 관광 관련 기사 게재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경상권(1,254건)이었다. 도시재생 관련 기사 게재 건수 대비 관광 관련 기사 게재 건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권(25.6%)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재생 자체에 관하여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대전·충청권이며 관광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진 지역으로는 부산·경상권이며, 지역내 도시재생 전체 대비 관광에 대한 관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제주권임을 알 수 있다.

Table 5. Number of articles published by region

Region	Urban regeneration articles	Related tourism articles	Percentage (%)
Gangwon region	1,366	312	22.8
Inchon Kyonggi	3,353	415	12.4
Daejeon Chungcheong	7,273	880	12.1
Busan Kyungsang	6,156	1,254	20.4
Gwangju Jeolla	4,207	1,003	23.8
Jeju regoin	508	130	25.6
Total	22,863	3,994	17.5

4.4 내용별 기사 게재 건수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관광적 관점에서의 도시재생 관련 지표는 다음과 같이 5개의 기준으로 나누어[1]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물리환경적 속성, 사회문화적 속성, 경제적 속성, 정치제도적 속성, 지역적 특성 5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 관련 기사는 지역적 속성(23,966건), 경제적 속성(8,882건), 사회문화적 속성(5,348건), 정치제도적 속성(2,278건), 물리환경적 속성(850건)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 관련 기사는 지역적 속성(4,180건), 사회문화적 속성(963건), 경제적 속성(574건), 정치제도적 속성(321건), 물리환경적 속성(141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 관련 기사 게재 건수 대비 관광 관련 기사 게재 건수 비율로는 사회문화적 속성이 18.0%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속성이 6.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6. Number of articles posted by article content

Article content	Urban regeneration articles	Related tourism articles	Percentage (%)
Physical Environmental	850	141	16.6
Economic	8,882	574	6.5
Social Cultural	5,348	963	18.0
Political Institutional	2,278	321	14.1
Local	23,966	4,180	17.4
Total	41,324	6,179	15.0

5. 결론

한 지역의 내재된 문화적 요소는 그 지역의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의 고유성을 중심으로 차별화한 전략은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13].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의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은 도시재생에 있어서도 관심과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를 기반으로 한 최근의 도시재생에서 관광은 중요한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관광분야가 다수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사업이나 정책, 관련법에서는 관광에 대한 내용과 규정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도시재생과 관광에 관련한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신문기사 게재 건수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에 있어서 관광의 관심 정도와 그

의미를 분석하여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언론보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KINDS '빅카인즈'를 이용하여 중앙지 11개, 경제지 8개, 지역종합지 28개 총 47개의 신문을 중심으로 도시재생과 관광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도별 게재 건수, 신문사별 게재 건수, 지역별 게재 건수, 내용별 게재 건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사 내용의 분석단위는 선행연구와 기사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물리환경적 속성, 사회문화적 속성, 경제적 속성, 정치제도적 속성, 지역적 속성 5개로 구분하여 연구자외 3명의 조사원과 함께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기사 게재 건수를 중심으로 한 외형적 변화 경향을 보면, 도시재생 관련 게재 기사는 총 45,396 건이었으며, 이 중 관광에 관련한 기사는 5,980건이었다(14.8%).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2000년에는 관련 기사가 없었으며, 도시재생 관련 기사가 게재된 것은 2001년도 2개부터 시작하여 도시재생의 기반이 구축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100건이 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되는 시점 즈음인 2012년 이후부터는 1,000건이 넘는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해마다 지속적으로 관련 기사 게재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 정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 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도시재생 관련 기사가 게재되기 시작한 2년 뒤인 2003년부터 도시재생에 있어 관광과 연결짓는 기사가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관광 관련 게재 기사 건수 또한 해마다 증가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1,000건이 넘기 시작하였다. 도시재생 관련 기사 중 관광과 관련된 게재 기사는 평균적으로 1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도시재생에 관한 관심은 정부 및 지자체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증가하게 되었으며 초반에는 물리적 재생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던 것에서 관광에 관심을 가지는 시점부터 소프트웨어적 재생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으로 전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중앙지, 경제지, 지역종합지로 구분된 신문사별로 게재 건수를 보았을 때 지역종합지, 경제지, 종합지 순으로 관련 기사가 게재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공간을 매력적으로 재창조하여 지역공동체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어오며 따라 지방자치제 및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1] 지역종합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지에 비해 경제지에 더 많은 게재 건수가 보여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적 성과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도시재생 관련 기사 중 관광 관련 게재 건수 비중을 살펴보면 많게는 27.6%에서 1.0%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관광이 도시재생을 활용한 실질적인 지역만들기의 실행방안으로 보여지면서 지역종합지에서의 게재 비중이 평균 1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게재 건수를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 관련 기사 게재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충청권(7,273건)이었으며 관광 관련 기사 게재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경상권(1,254건)이었다. 이는 대전시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이 도시재생 관련 사업들과 프로그램들을 활발히 진행·홍보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어지며, 부산·경상권에서는 부산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지역인 감천문화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목적지로 관심을 받으면서 관련 기사 게재 건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제주권은 권역 전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특구지역으로서 도시재생 관련 게재 기사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적었지만(508건) 게재된 기사의 내용이 관광 관련 기사들로 그 비중이 가장 높음으로서(25.6%) 도시재생에서의 관광의 중요성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관련 게재 기사들을 내용별로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분석단위 5가지인 물리환경적 속성, 사회문화적 속성, 경제적 속성, 정치제도적 속성, 지역적 속성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도시재생 관련 게재 기사들의 내용으로는 지역적 속성, 경제적 속성, 사회문화적 속성, 정치제도적 속성, 물리환경적 속성 순으로 게재 건수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의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홍보에 관련한 내용을 다룬 기사들이 신문기사로 가장 많이 게재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속성은 단순히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홍보에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의 수단인 되는 신문기사에 있어 내용적인 면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실질적인 내용상의 분류로 보았을 때 도시재생 관련 기사는 경제적인 성과에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속성 또한 도시재생에서 그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치제도적 속성과 도시재생 처음 도입시 가장 집중되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환경적 속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재 건수를 나타내는 것은 최근의 도시재생에서는 물리적 측면보다 소프트웨어적 측면과 성과에 더 많은 관심과 중요성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재생 관련 기사 중 관광에 관련된 게재 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또한 지역적 속성, 사회문화적 속성, 경제적 속성, 정치제도적 속성, 물리환경적 속성 순으로 기사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도시재생 관련 기사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도시재생 관련 기사에 비해 관광적 측면에서 다루어진 기사들은 경제적 속성보다 사회문화적 속성에 더 많은 기사들이 다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관광에서의 사회문화적 요소는 도시재생에 있어서 경제적 성과보다 더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기사 검색을 통하여 도시재생에 있어서 관광에 대한 관심도와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향후 도시재생은 현존하는 지역의 문화와 지역공동체를 유지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지역의 중요한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물리환경적 재정부에서 벗어나 사회·문화·경제적으로 지역 전체를 개선할 수 있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나아가 할 것이다. 한 지역에 내재된 사회문화적역량 강화는 지역의 도시재생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만이 가지는 고유성을 차별화하는 전략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발전시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정책들로 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정책은 지역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며 관광목적지로서의 흡인력 또한 높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을 주관하는 지역의 노력 이외에도 도시재생에서의 관광 콘텐츠의 자체의 질적 제고 및 관광의 효율적인 추진과 효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마련이 필요시 된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있어서도 도시재생사업 계획 내에 관광 관련 사업을 일정부분 포함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유형별 특성에 있어 관광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항목들을 제시하고 도시재생과 관광을 연계한 활성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도시재생 및 관광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적 측면을 고려한 지역문화 수반의 기반 마련과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의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및 관찰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함에 따른 연구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국내 발행되는 모든 신문기사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구대상 선정 및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References

- [1] S. J. Seo, "A Study on the Promotion of Downtown Tourism through Urban Regeneration Project", Korea Tourism Policy,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No.70, pp.78-85, 2017.
- [2] H. J. Kim, "The new proposal for Urban tourism policies according to implementation of the urban revitalization", Basic Research,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Vol.20, pp.1-265, 2014.
- [3] S. H. Lee, "The Influences of City Brand Congruity and Urban Regeneration Impact of Cultural Art Tourism on City Image, Involvement and Attitude of Urban Regeneration",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Vol.23, No.1, pp.247-268, 2019.
- [4] K. H. Kwon, Gamcheon Culture Village Finds 2.57 Million People Last Year, The Hankook Ilbo, 2019[cited 2019 January 14],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41485084280?did=NA&dtype=&dtypecode=&pmewsid=>
- [5] H. G. Kim et al, Practice Urban Regeneration, p.8, 223-230, MiSeUm Publishers, 2014.
- [6] M. Y. Kim and K. J. Lee. "A Thematic Analysis of Nurses' Work-Family Balance in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2, pp.446-457,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2.446>
- [7] M. K. Bae and S. H. Park,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the Project Contents and Expected Effects of Urban Regeneration Pilot Projec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18, No.10, pp.527-544,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10.527>
- [8] H. K. Kang, T. Y. Um and J. A. Ryoo, "A Study on Typology and Contents of Social Welfare Program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17, No.7, pp.31-43, 2017.
DOI: <https://doi.org/10.5392/JKCA.2017.17.07.031>
- [9]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Urban Regeneration Information System, <https://www.city.go.kr>(accessed Jan. 25, 2019)
- [10] C. H. Oh, K. H. Nam and T. Michalis, "The Dynamics between Tourism and Urban Regeneration in the Aspects of Happiness: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ourists' Citizenship Behavior", *Journal of Tourism & Leisure Research*, The Korea Academic

- Society of Tourism and Leisure, pp.549-560, Aug.,2018.
- [11] J. W. Choi and J. H. Lee, "An Impact Analysis of Idle Space Regeneration Types on Regional Revitaliz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 5, pp.478-489,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5.478>
- [12] K. C. Lee, "An Explorative Study on Small Town's Tourism Function for Regeneration and Identity Establishment- Focusing on Taeaeon-eup, Chungcheong nam-do-", *The journal of tourism studies*, Vol.26, No.1, pp.191-215, 2014.
- [13] Y. S. Kim, M. O. Kim and J. S. Ko, "The effect of Regional Development of culture-led Urban regeneration-focused on European Capital of Culture programme",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economics*, Vol.21, pp.3-21, 2012.
- [14] T. J. Lee, "Policy Alternatives of the Silla Heritage Resources Development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Policy Sciences*, Vol.13, No.1, pp.235-261, 2009.
- [15] S. S. Shin, J. H. Rho and K. S. Han, "A Study on the Inquiry-Network Development of Historic Culture Landscape for Diagnosis of Traditional Landscape Identity-A case of the Jeonju Palkyoung Area-",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Vol.23, No.2, pp.90-100, 2005.
- [16] J. G. Seo, "Study on the Cause and Strategic Approaches to Urban Decline and Shrinkage: Focusing on the case of Liverpool and Leipzig",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6, No.1, pp.97-115, 2014.
- [17] M. S. Jeon and J. W. Han, "A Study on the Kano Analysis for Urban Design Brand and Identity Improvement-Focused on Urban Design Guideline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Design Culture*, Vol.23, No.3, pp.655-665, 2017.
- [18] B. H. Rhee and D. M. Chang, "Indicators and Planning Features of Ecologically Based Urban Regeneration-Cases from Hamburg, Germany and Copenhagen, Denmark",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10, pp.158-166,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10.158>
- [19] K. C. Kim, G. Y. Kim and J. S. Lee, "A Study of Evaluation Indexs of Site Selection for the Urban Regeneration Schem -Focused on the Special Actson the Promotion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Korea Real Estate Academy Review*, Vol.61, pp.31-45, 2015.
- [20] J. Y. Kim, S. Y. Heo and T. H. Moon,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Jeonju Hanok Village Area",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Vol.23, No.1, pp.106-117, 2017.
- [21] N. Y. Lee and J. S. Ahn, "General Type of Neighborhood Regeneration'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Promotion of Resident-Paticipation: Focusingn on Garibong-dong, Guro-gu, Seoul",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Vol.20, No.3, pp.63-78, 2017.
DOI: <http://dx.doi.org/10.21189/JKUGS.20.3.5>
- [22] S. H. Yang and H. J. Park, "Water Park Trend, Place for Leisure & Therapy : Contents Analysis of Newspapers' Article", *The Journal of Tourism Industry Research Institute*, Vol.6, No.2, pp.15-28, 2012.
- [23] Korea Press Foundation, News Bigdata & Analysis, BigKinds, <http://www.kinds.or.kr>(accessed Jan. 20, 2019)
- [24] . H. Lee, A Study on Developing Indicators of Tourism Destination Regeneration: Focused on the Regeneration of Urban Tourism Destination, Ph.D dissertation, Graduated School Kyung Hee University, pp.61-64, 2014.

박 희 정(Hee-Jung Park)

[정회원]



- 2001년 2월 : 신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10년 2월 :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관광학박사)
- 2008년 3월 ~ 2014년 3월 : 신라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전 임연구원

• 2014년 4월 ~ 현재 : 신라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도시재생관광, 슬로투어리즘, 관광상품